



아주대학교

제5기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인간, 상상의 나라를 떠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인간과 상상력'은 나를 돌아보는 공부이고, 나와 남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접어두었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향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상력의 매혹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평생교육원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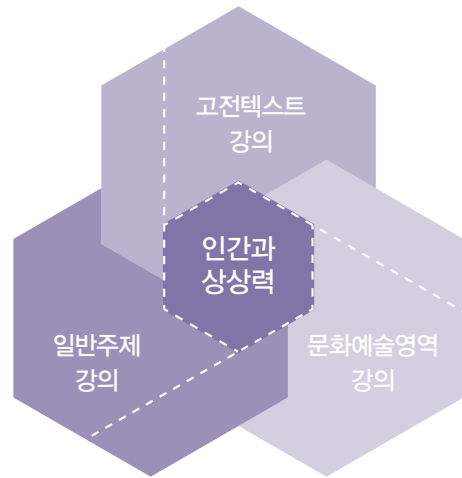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매 학기별 화두가 되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강좌로 운영됩니다.

14주 동안 진행되는 다채로운 강의는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시대를 선도하는
인문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회적 리더로서 또한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고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고 인품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자유로운 사유공간입니다.
 이 사유는 나와 너 · 사회 · 자연을 포괄합니다.
 사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상상력의 날개를 펴시고
 자유로운 영혼, 창조적인 정신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 계열의 다양한 강의 구성



전체 강의는 3개 계열, 즉 인문고전을 읽고 탐구하는 인문학 고전텍스트 강의, 흥미롭고 시의성 있는 특정 테마를 다루는 인문학 일반주제강의, 문화와 예술분야의 감성과 전문지식을 익히는 문화예술영역강의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주체적 학습과 테마별 심화교육, 문화적 감성교육의 기회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공통 테마가 있는 강의

학기별로 당대의 화두를 공통주제로 선정하여 강의를 운영한다. 14주 개별 주제들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강의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고 집중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한다. 이번 학기 강의의 공통주제는 ‘인간과 상상력’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현상을 고찰한다.

나를 찾는 고전텍스트 공부

동서양의 대표적 고전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고전을 직접 읽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한다.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담긴 고전을 학습함으로써 주체적이고 반성적인 인문학 공부를 실천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학습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는 한국의 보편적 전통과 지역사회의 특수한 전통을 함께 이해하기 위함이다. 전통문화 학습과 체험은 문화기행형식으로 매 학기 진행된다. 이번 학기에는 화성을 답사한다.

인문 경영능력 함양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인간과 문화에 대한 원천 지식을 함양하고 개인과 인간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인간적 감성과 창의적 상상력을 고취하며 사회적 리더로서의 품격과 역량을 고양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성찰과 자기계발의 기회까지 주어지는 과정을 통해 모든 수강생들은 최고관리자가 갖춰야 할 인문경영능력을 갖추게 된다.

| 인문학과 소통하는 사회적 리더들을 초대합니다



인문학아카데미
원장 조 광 순

최근에 사람들은 인문학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실용주의와 상업주의가 우세한 현대 사회에서 등한시했던 인문학의 존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반문하게 됩니다. 저는 인문학을 행복에 대한 성찰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인문학의 주종을 이루는 문학, 사학, 철학 등의 학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는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여 왔고 이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개인생활이 아무리 분주하고 사회가 복잡하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은 이런 문제들을 성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주대학교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강의에서 창조적 인간, 실천적 인간, 혁신적 인간, 통합적 리더십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쟁점 중의 하나인 통합이라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도 봄에는 관심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인간과 상상력'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미치는 곳은 어디까지일까를 고민하고 상상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다양하게 가꾸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강의 외에도 고전읽기와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이 계속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훈민정음』, 『시경』을 읽음으로써 고전의 진수를 감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양고전음악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감수성과 심미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봄에 펼쳐지는 상상력의 아름다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간과 상상력

강좌	날짜	구분	강의주제	강사
제1강	3/14(월)		입학식	
		일반	언어적 상상력: 상상을 방해하는 언어와 극복하는 언어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2강	3/21(월)	일반	현대미술과 상상력: 관습과 자아를 넘어서는 힘	박영택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제3강	3/28(월)	고전	인간의 비극과 부활의 서사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이병훈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제4강	4/4(월)	일반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상상을 만든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5강 (합동강의)	4/11(월)	일반	'꿈꾸는 역사'로서의 사극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6강	4/18(월)	문화 · 예술	고전 음악가들의 음악과 삶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7강	4/23(토)	문화기행	문화기행: 수원 화성의 진정성 찾기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제8강	5/2(월)	고전	『훈민정음』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제9강 (합동강의)	5/9(월)	일반	뇌 과학과 상상력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제10강	5/16(월)	일반	상상력과 교육: 호모 에루디티오 (Homo Eruditio)의 기적	한준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제11강	5/23(월)	고전	신경의 흐름, 순정의 노래, 『시경』	윤한택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교수)
제12강	5/30(월)	일반	상상력과 창의성: 상상력의 여섯 가지 얼굴	진형준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제13강	6/13(월)	일반	과학과 상상력: 자연을 보는 틀	박영무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제14강	6/20(월)	일반	상상력이 창조경영의 핵심이다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6/27(월)		수료식	

제1강

언어적 상상력 : 상상을 방해하는 언어와 극복하는 언어



박만규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장, 디지털휴머니티센터 센터장, 불어권협력센터 센터장, 국립국어원 정보화심의회 위원,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전 파리7대학 몬트리올대학 초빙교수
- 수상·상훈: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 (Ordre des Palmes Académiques) 기사(Chevalier)장 수훈
- 연구 분야: 언어학, 언어교육학, 전산언어학, 사전학
- 저서·편자: 『새힘불사전』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사전』 (두산동아)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인출하는 행위이지만, 상상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고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상상은 기억보다 어렵다. 그러나 상상도 온전히 새로운 것을 사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기존의 것들의 새로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상이 어려운 것은 그러한 새로운 조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방해하는가? 그것은 현재 갖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기억, 이데올로기, 감정들과 그것들이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언어적 연상망이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탈출해야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의 영역의 경우 한 요소가 더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와 상대방의 욕망이다. 상대방은 나와 똑같이 자신의 생각을 내게 불어넣으려고 한다. 이 강의에서는 이 같은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인지언어학적 방법과 원리를 살펴본다.

제2강

현대미술과 상상력 : 관습과 자아를 넘어서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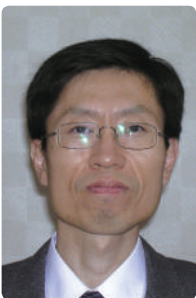
박영택 (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 성균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 현 동아미술제 운영위원, 키아프 운영위원,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이사, 조선일보 신춘문예미술평론 심사위원, 전 금호미술관 큐레이터, 아시아프 전시회 총감독
- 저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 『식물성의 사유』, 『수집미술』, 『애도하는 미술』, 『한국현대미술의 지형도』 등

미술은 우리에게 사물과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깨우쳐준다. 그것은 자아에 사로잡힌 틀, 나라고 믿는 갇힌 영역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나고 그 타자의 감각과 세계관을 접하는 동시에 그것을 향유하게 한다. 그로 인해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타자의 삶을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미술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한다. 현대미술은 바로 그러한 눈, 감각을 마주하게 한다. 동시대 현대미술 중 뛰어난 작품들, 다시 말해 흥미로운 상상력을 통해 기존의 관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여러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에서의 상상력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강

고전읽기1 인간의 비극과 부활의 서사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이병훈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 모스크바 국립대학 문학박사
- 잡지 『문학과 의학』 편집인
- 저서: 『모스코버가 사랑한 예술가들』, 『백야의 삐삐르 부르크에서』, 『아름디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 역서: 미하일 불가코프의 『젊은 의사의 수기 모로핀』, 벨린스키 문학비평선 『전형성 파투스, 현실성』 (공역), 비고츠키의 『사고와 언어』 (공역)

이 강의의 목적은 인간의 비극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죄와 벌』을 살펴보는 데 있다. 강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의 작품세계와 연관 지어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작품의 주제, 인물, 배경, 도시공간 간의 의미 등을 다룰 것이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죄와 벌』의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강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상상을 만든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텍사스대학교 심리학 박사
- 아주대학교 입학사정센터장, 창의력 연구센터장, 삼성HR전문교수,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의료분쟁중재원 조정위원
- 연구 분야: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창의성
- 저서: 『이름지말고 따르게 하라』, 『지혜의 심리학』
- 역서: 『혁신의 도구』
- 저서 · 편서: 『음악과 지각과 인지』, 『뇌로 통하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른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같은 능력이라도 '상황'의 변화를 통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고 설계될 수 있을까? 바로 상상의 전환을 통해서다. 심리적 상황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상상이 가능해지며 다시금 어떻게 창의와 융합이 가능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5강

'꿈꾸는 역사'로서의 사극



김기봉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독일 빌레펠트 대학 박사
- 역사학회 부회장 전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팩션 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 『역사들이 속삭인다』, 『29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문화의 지형도』(공저),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읽기』(공저), 『가족의 비행』(공저)
- 역서: 『20세기 사학사』(공역)

인간은 현실과 꿈이라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문명을 건설한 유일한 생명체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현실세계를 넘어서 꿈꾸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상징적 언어의 소통능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병주는 『산하』에서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라고 썼다.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과거의 사실은 대부분 양지의 역사다. 그것에 의해 추방된 음지는 달빛에 물들어서 신화나 설화가 된다. 신화와 설화는 거짓이 아니라 꿈의 서사다. 현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학이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은 '꿈꾸는 역사'로서 사극에 열광한다.

제6강

고전 음악가들의 음악과 삶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 러시아 그네신음악원 성악, 오케스트라 지휘과 박사과정 수료
- 현) 놀라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국립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예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N캠페인 홍보대사
- 전) MBC 미니시리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 KMA(한국능률협회) 클래식아트경영 최고경영자과정 리딩멘토
- 저서: 『서희태의 클래식토크 "베토벤 바이러스"』, 『클래식 경영 콘서트』, 『오케스트라처럼 경영하라』 등

고전주의 음악가 3인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일컫는다. 그들이 작곡한 음악과 삶,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지혜를 배운다.

제7강

문화기행: 수원 화성의 진정성 찾기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 중앙대학교 박사
- 국제기념물유적협회 한국위원회 위원
- 강화유적 세계유산 등재지원, 전 수원시 학예사, 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
- 전 경희대학교 휴머니티스킬리지 교수
- 연구 분야: 정조시대 정치사

이번 화성 문화기행의 목적은 화성이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그 진정성을 찾는 것에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과 완전성이다. 진정성이란 바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문화유산의 가치이고, 완전성이란 해당 문화유산이 얼마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냐이다. 그런 면에서 수원 화성은 완전성에서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기간에 많은 시설물이 포탄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유산 등재 심의 시에 완전성 부분이 화성 축성의 모든 것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로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완전성 부족은 화성에게 있어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화성의 축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가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원 화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문화기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볼 것이 바로 화성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이다. 그 진정성을 찾기 위한 문화기행이 되기를 기원한다.

제8강

고전읽기2 『훈민정음』



이상신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연구 분야: 국어학(음운론, 방언학)
- 수상 경력: 한국방언학 학술장려상(한국방언학회)

이 강의의 목적은 『훈민정음』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세종과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우리 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한글' 혹은 '훈민정음'이라는 명칭,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 창제 동기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글이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9강

뇌 과학과 상상력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 미국 남가주대학교 의공학박사
-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 직무대행, 세계미래포럼 자문위원, 경기도 혁신위원회 위원, 전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
- 전 삼성전자 DMC연구소 자문교수
- 저서: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오프라인 비즈니스 혁명』,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상상력과 지식의 도약』 (공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돈의 힘』, 『크라우드펀딩』 (공저) 등

우리 뇌는 어떻게 동작할까? 인체의 가장 신비로운 기관인 뇌과학의 발전은 과거보다 우리의 뇌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질병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뇌가 움직이는 방식과 유사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뇌와 유사한 컴퓨터까지도 제작이 되기 시작했다. 뇌과학을 이해하면서 상상력 및 창의력과 관련한 비밀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상상력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제10강

상상력과 교육: 호모 에루디티오
(Homo Eruditio)의 기적

한준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 미국 남가주대학교 박사
- 연세대 학생처장, 교육대학원장, 교육과학대학장 역임
교육사회학회장, 성인교육학회장, 배움학회장,
미래교육학회장 역임
- 연구 분야: 평생교육, 노인학, 배움학
- 저서: 『새로운 교육학』,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생의 유(遺)』 등
- 수상경력: 홍조근정 훈장, 교육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학술상(2회), 문공(제부)·학술원 추천 우수학술도서(5회)

밖을 보려는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데 반해 안을 보려는 사람은 깨어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력이 원래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밖을 보려는 사람들은 교육을 예찬하기 마련이고, 안을 보려는 사람들은 교육 너머를 상상해내려고 한다. 교육은 우리에게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를 채근하지만, 상상력은 그런 장벽과 경계의 무너짐을 예찬하기 마련이다. 교육과 상상력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팽팽한 긴장, 갈등 그리고 조화들 그 모두는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그러니까 '배우는 인격' 하나를 꽃피워 내기 위한 기적(奇蹟)들이다.

제11강

고전읽기3 신경의 흐름, 순정의 노래, 『시경』



윤한택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교수)

-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경기도문화재위원
- 청명 임청순 사서(한학), 우이 신영복 사서(서도),
사람과 땅의 문학 동인(시)
- 연구 분야: 고려토지제도사, 공·私 연구
- 저서·역서: 『고려 양반과 양반전 연구』, 『국역 김천집』(역서),
『국역 백곡선생 문집』(역서), 『국역 간와집』(역서) 등

시경을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라는 복고적 관점에서 읽는 것을 지양하여, 인류 근대 문명 전환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유학 경전이지만 유학의 것대로 읽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내용이 유학 성립 이전인 고대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인류학, 고고학, 문자학, 신화학, 종교학, 물리학, 생물학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12강

상상력과 창의성: 상상력의 여섯 가지 얼굴



진형준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 세계상상력연구센터(CRI) 한국 지회장 및 한국 상상학회 회장,
전 홍익대학교 문과대학장, 전 문화관광부산하 특수법인
한국문화번역원 원장
- 저서: 『위기를 비웃어라 - 어린왕자와 위기 극복의 상상력』,
『상상력 혁명』, 『상상력과 문학』, 『실증주의 시대의 힘, 상상력』 등
- 역서: 『자기 집의 세계화』, 『신비주의의 위대한 선각자들』,
『상상계의 인류학적 구조들』 등

상상력의 기본은 다원주의와 유기적 사유에 있다. 상상력의 기본 정신을 여섯 가지 면모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창의적 상상력은 무엇인지 강의한다.

1. 상상력은 이질적인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 『서유기』의 상상력
2. 상상력은 일체감을 갖는 것
- 일원론과 이원론과 다원주의
3. 상상력은 이질적인 것을 연결하는 맥을 찾는 것
- 역사사지의 상상력
4.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전체를 보는 것
- 유기적 사유와 유기적 조직
5. 상상력은 꿈
- 창의성의 출발은 꿈
6. 상상력은 사랑이고 비전

제13강

과학과 상상력: 자연을 보는 틀



박영무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미국 미시간대학교 공학박사
- 전 MIT 교환교수, KIST 연구원
- 연구 분야: 열역학, 기술과 사회
- 저서·역서: 『인간-기술-사회 희망의 원리』, 『일본기술의 변천 테사 모리스-스즈키』(역서), 『열역학 R.E Sonntag 외 저』(공역서)
- 수상 경력: 한국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학술상(200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학술논문상(1996)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은 '서구 과학'이다. '동양'에도 과학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동양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구 과학'과는 다를 것이다. 현재, 자연 세계를 해석하고 현대 기술을 주조했거나 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동양 과학'이 있는가? 중세 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귀중한 기술과 지식은 대개 중국과 인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창출되었다. 그런데 왜 '서구 과학'과 같은 '근대 과학'은 이곳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서구 과학을 뒷받침하는 상상력은 무엇인가?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을 주는가? 상상력이 있음으로 우리는 자연을 보고 알게 되는 건 아닌가? 과학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상상력을 본다.

제14강

상상력이 창조경영의 핵심이다



조영호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Aix-Marseille) III 대학교 경영학 박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ditorial Review Board member, Journal of World Business, Published quarterly by Elsevier Inc., Amsterdam, The Netherlands*.
- 전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저서·역서: 『경영학 뉴패러다임: 조직인사·노사관계』, 『청계구리 기업문화』, 『인간경영64훈』(역서), 『엑셀런트 리더십』(역서) 등
- 수상 경력: 한국인사조직학회 우수논문상(2006),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2007)

현대 경영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둘 다 세계적인 기업이고 비슷한 매출액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애플의 이익은 삼성전자의 5배에 이른다. 창조경영의 효과인 것이다. 그러면 창조경영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곧 현실안주의 자세를 타파하는 것이고 조직원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상상력이 없는 경영전략은 불가능하고, 상상력이 결여된 조직은 도태된다. 이 강의에서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통해 경영과 상상력의 관계를 다룬다.



교육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6년 3월 14일(월)~6월 27일(월) • 강의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 905호 • 강의일 : 매주 월요일(14주 강의) ※ 문화기행 : 4월 23일(토) • 강의시간 : 19:00 ~ 21:00(2시간) • 주차는 교내 주차장 이용(무료주차)
모집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벤처 기업인 • 행정, 입법, 사법부 등 정부 인사 및 책임자 • 금융, 문화예술, 법조, 언론, 의료, 체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 전/현직 모두 지원 가능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 3,000,000원(교재 및 문화기행 경비 포함) • 입금계좌 :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632-15-000986(예금주: 아주대 평생교육)
장학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단체에서 3인 이상 등록 시 수강료 10% 감면
원서교부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 21일(월)~2016년 2월 29일(월)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명함판 사진(4×5size, 컬러사진) 1매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접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방문접수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팀(캠퍼스플라자 301호) • 인터넷접수 :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ysjang@ajou.ac.kr) 발송 ※ 홈페이지(http://cl.ajou.ac.kr) 접속→게시판(공지사항)→입학지원서 다운로드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통보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031-219-1565, 3583 • 홈페이지 : http://cl.ajou.ac.kr / 팩스 : 031-219-1566





아주대학교 | 인문대학 | 평생교육원
 AJOU UNIVERSITY | College of Humanities | Center for Lifelong Learnin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 031-219-1565, 3583 f. 031-219-1566